인간 실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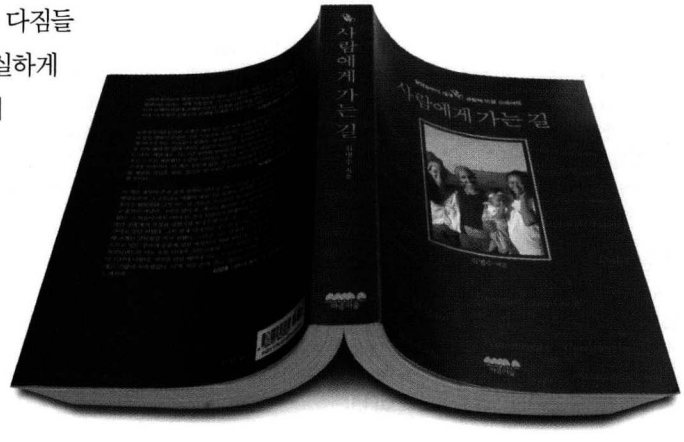
삶과 사람, 자연의 이어짐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공간으로의 여행

글_ 이은선 도서출판 마음의숲 편집부

인간의 실존은 다른 존재와 현실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그러기에 인간은 여러 관계의 이어짐과 어울림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차별, 분쟁, 충돌, 갈등, 전쟁으로 끊임없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이는 결국 우리에게 살아가야할 의지와 생의 지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파괴와 폭력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에만 급급해하며 살고 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숨 가쁘게 말이다.

팔당농부의 원고를 한 꼭지 한 꼭지 받을 때마다 난 이런 현실에 대한, 그리고 멀어진 관계들에 대한 아쉬움과 희망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였다. 한 인간이 빚어낸 2년 6개월간의 여정. 그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순례여행이라 할 수 있었던 건 처음 원고를 접할 때의 느낌 때문이었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멕시코, 인도, 쿠바, 독일, 덴마크,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북아일랜드를 비롯하여 2박 3일 동안 작은 카누만을 타고 가야하는 아마존 밀림까지 들어가 본래 자연의 모습 그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세계 공동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들과 함께 하며, 사람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에 대한 큰 깨달음을 바탕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유토피아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었다. 이는 추상적인 종교적 깨달음을 구체적 현실로 바꾼 것이었다.

원고를 접하기 전까지 나에게 유토피아란 인간이 욕망을 지니고 있는 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천상의 그 무언가 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원고를 다 읽을 때 쯤, 나는 그동안의 생각들이 참으로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사람의 가치와 그 위대함을 간과하고 있었다. 《사람에게 가는 길》에서는 유토피아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자연 본래의 그 모습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보듬으며 사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한다. 정말 이 대목에선 커다란 무언가가 내 머리를 내리치는 느낌이었다. 알코올중독자들과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자폐아동들을 가르치고 아픈 영혼을 위로하며, 평화를 위해 세계 여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은 "개인의 삶을 고양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오늘날 우리의 가치지향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이 시대의 대안이었다.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사진을 받고 우리가 정한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팔당으로 저자를 만나러 갔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살고 있는 저자는 그 공간적 특성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돌과 갈등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고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저자는 개인의 삶이 아닌 공동체의 삶을 생각하고 함께 존재하기 위해 그곳에서 유기농업을 시행하며 팔당공동체를 이루어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저자의 삶의 모습은 책을 출간하고 난 지금까지 내 가슴을 뛰게 만든다. 오늘날 인간 실존에 대한 몸부림과 그 몸부림이 빚어낸 삶의 모습 때문이다.

저자를 만나고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출판의 길로 들어서면서 생각했던 그리고 다짐했던 것들을 말이다. '사람에게 유용한 책을 만들고 싶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나의 다짐과 바람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저자를 만나고 책을 출간하면서 나의 이러한 다짐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